

이덕일의 '역사의 창'



2025년 검정 한국사교과서를 보고

2025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이 통과되었다. 그중 하나인 한국능력평가원의 한국사교과서를 두고 논란이 심하다. 필자가 9종의 교과서를 대략 살펴보니 한국능력평가원의 교과서는 대일항전기를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능력평가원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8종의 교과서가 모두 크고 작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모두 교육부에서 제시한 편찬지침에 따라서 서술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만 문제이고, 다른 8종의 교과서는 면제부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교과서는 약 65쪽 정도 분량의 1, 2권으로 나누어졌는데 1권의 경우 'I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 II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 III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으로 구성되었다. 'I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는 70만년 전의 구석기 시대부터 대원군 시절까지를 약 20쪽 분량에 모두 담는 괴력을 보여 주고 있다. 중학교 때 이 시기를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고교에서 배우는 것은 중학 때보다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배우는 것이 마땅하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역사 전체를 보는 기준이 '근대'라는 점이다. 근대를 기준으로 고조선 건국부터 모든 역사를 '근대 이전'으로 보는 관점이 과연 올바른가? 우리 역사 전체를 '근대 이전'으로 폄하한 다음 '근대 국

가 수립의 노력'이 이어지는데 그 시점이 일본에게 강제 개항한 '강화도 조약'이다. 이 강제 개항부터 일제 식민지배까지를 근대화라는 관점으로 서술했으니 '식민지 근대화론'에 따른 서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또 다른 문제는 팩트(사실)와 다른 서술이나 지도들인데 이는 대부분 강역사에 집중되어 있다. 통일신라의 강역이 그 이전 진흥왕의 영토확장 시기보다 축소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고려, 조선강역이다. 9종의 교과서는 모두 고려 북방강역 서북쪽은 압록강부터 동북쪽은 지금의 함경남도 아래로 비스듬히 그려놨다. 이 글을 보는 독자들도 과거에 이런 지도로 배워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도는 실제 고려 북방강역을 설명하는 '고려사'·'조선왕조실록'은 물론 중국의 '명사(明史)' 등의 기록과도 크게 어긋난다. 고려 동북방 지역을 동계(東契)라고 하는데, '고려사', '지리지 동계(東契)' 조는 "북쪽은 공험부터 남쪽은 삼척까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9종의 교과서는 모두 동계의 남쪽 삼척을 경상도 포함 부근으로 그려놓고 있다. 우리나라 수천 명의 역사학자들이 강원도 삼척을 경상도 포함 부근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공험은 고려 원수 윤관이 여기까지가 고려 땅이라는 뜻의 '고려지경(高麗之境)'이라는 비석을 세운 곳이다. 이 공험에

대해서 '세종실록지리지'는 두만강의 경원에서 북쪽으로 700리라고 명시하고 있고, 성호 이익도 '윤관비'에서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명시했다.

일제 때 이케우치 히로시, 쓰다 소키치 등의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험진을 함경남도라고 조작했는데, 한국 역사학계(?)의 이른바 태두(泰斗)라는 이병도 박사는 이케우치, 쓰다 등에 대해서 '존경할만한 인격자', '학문이 실증적'이라고 치켜세웠고, 그 제자들이 장악한 한국 역사학계는 광복 80주년이 다 되는 지금까지도 두만강 북쪽 700리 공험진을 두만강 남쪽 1000리 함흥 부근으로, 강원도 삼척을 경상도 포함으로 조작해서 국민들을 속여왔던 것이다.

모든 교과서는 조선 세종 때 조선 국경이 압록강-두만강까지 확장되었다고 그려놨는데 그렇다면 간도는 고려, 조선 천여 년 동안 우리 땅인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런지 '간도협약'을 서술하면서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고 간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한 교과서가 절대 다수다.

광복 80주년이 되도록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조작한 내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나라는 정상일 수가 없다. 우리 학생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조문에 맞는 교과서로 배울 권리가 있다.

<순천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社說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 지역 신문 늘려야

모든 분야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외와 쇠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와 정보의 생산 및 공급까지도 지역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지역 매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언론 매체의 참여율이 가장 낮으며, 특히 신문 매체는 사실상 뉴스를 전혀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정보 불균형 현상도 심각해지면서 궁극적으로 여론조차도 수도권 위주로 형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포털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각 언론사와 3종의 제휴를 맺고 뉴스 콘텐츠를 공급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노출 빈도가 가장 높고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 '뉴스 콘텐츠 제휴'의 경우 방송사, 신문사, 경제지, 전문지, 매거진, 지역지 등 87개 언론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서구을) 국회의원이 분

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지는 네이버 전체 CP(콘텐츠 제휴)사 87개 중 12곳(14.1%)에 불과한데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로 추가 편입된 지역지는 단 한곳도 없었다. 더욱이 CP사 선정 과정에서 중앙매체는 본 매체뿐 아니라 자회사까지 6~7개씩 제휴를 맺고 있지만, 지역 매체는 지역신문과 지역방송까지 포함해도 비율이 낮았다.

포털 뉴스 제휴에서의 지역 차별은 무엇보다 지역 여론의 전국화를 막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먼저 지역 매체 비중을 인구대비 최소 20~30%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 인구 153만 명인 강원권은 2개 신문사가 CP사로 선정됐으나 인구가 두 배로 322만 명인 광주·전남은 1개 언론사만 선정됐을 뿐이며 신문사는 아예 단 한곳도 없는 것에서 보듯, 지역 불균형도 시정해야 할 것이다.

외면받는 광주 전남 상생카드 대책있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되레 광주·전남지역 상생카드(지역화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맹점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데다 동네 마트부터 병원, 주유소, 학원 등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가맹점을 사용처에서 배제시켜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광주 지역 상생카드 발행액은 4206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2%(6243억 5400만 원) 감소했다. 사용액도 지난해 1월~8월 6514억 7600만 원에서 4332억 5500만 원으로 줄었다. 전남도 역시 2023년(1~8월) 9340억 400만 원에 달했던 발행액이 올해 8월까지 7106억 3000만 원으로 무려 23.9% 줄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안화폐다. 광주상생카드는 2019년 도입

당시 5%대 할인율로 발행액은 963억 원이었으나 다음해 할인율을 10%로 인상되자 8641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정부가 골목의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상생카드 할인율 인하로 사용 가능한 가맹점도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전남의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사용처를 찾기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신규 신청이 막혔고 이미 등록된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상생카드의 결제가 제한된 것이다.

지역화폐가 경쟁력을 갖는 건 인센티브 때문이다. 따라서 상생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액 조정이 필요한 업종은 완화시키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치권이 상생카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

無等鼓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일까? 심장, 눈, 얼굴 등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다. 수년 전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제정치'를 주제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고, 이 질문을 꺼내면서 수업은 시작됐다. 아이들의 답변도 다양했다. 머리가 아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머리이며, 발바닥에 티눈이 박힌 사람은 온통 티눈 생각뿐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중요한 곳이 다르다. 국제정치라는 까다로운 강의 주제를 놓고 티눈 이야기를 꺼냈으니 아이들의 표정도 시큰둥했

정치적 공간이 되고 있다. 텃밭 사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지방선거 호남 압승을 위해서도 재선거 승리가 절실하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차기 대통령선거에서도 호남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조국 혁신당도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 실험무대가 이번 영광·곡성 재선거가 되고 있다.

손톱 밑 가시

같은 맥락에서 현재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손톱 밑 가시를 유발하는

이번 재선거를 통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던 '손톱' 같은 북한이라는 말에 아이들은 비로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과 조건이 때로는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한다. 손톱만큼, 하찮게 여겼던 정치적 사안도 가시가 박히면 두고두고 괴롭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손톱 밑 가시를 유발하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두고 호남이 야권의 가장 중요한

경을 쓰지 않던 '손톱' 같은 북한이라는 말에 아이들은 비로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광복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의료칼럼

장년·노년 치아 건강의 적, 치근 우식



민정범 조선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 교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즘 장년, 노년층 환자들에서 치아의 뿌리에서 생기는 충치로 인해 건강했던 치아가 쉽게 망가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치근 우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물론 필자 역시 이미 장년에 이르러 치근 우식의 발생을 염려해야 할 시기가 되었기도 하다.

장년이나 노년층에서 만성치주질환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노출된 뿌리는 치아의 머리와 달리 단단한 껍질이 없어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충치가 발생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 치근 우식은 뿌리에서 잇몸 하방으로 진행되고 보이지 않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고 자각증상도 거의 없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치과에 내원하게 된다. 치료법은 썩은 부위를 제거한 후 메우는 수복치료가 기본이지만 진행 정도가 심하면 신경치료를 받기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충치의 위치, 잇몸의 출혈 등의 이유로 치료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최근에는 silver diamine fluoride 약물을 사용하여 충치의 진행을 정지시키거나 예방하는 등 기존의 치료법에 비해 덜 침습적인 치료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치아의 머리가 아무리 견조할지라도 뿌리가 망가지면 사용할 수 없다. 건물의 기둥이 부실해졌을 때 쉽게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간혹 환자와 상담 중 관리나 예방보다는 '치료하면 되지 않나?' 아니면 '그

냥 빼버리면 되겠지'라고 평생 사용해 온 치아를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인공적인 치아가 자연치와 똑같을까? 또한 이때 발생하는 치료비와 예방하는데 드는 비용은 서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치근 우식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치근 우식은 칫솔질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경우 치실이나 치간칫솔의 사용을 병행해야 한다.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어 있고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는 경우나 음식물이 뿌리에 들러붙어 잘 제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치간칫솔이 삽입되지 않은 부위에 치실을 사용하고 공간이 넓다면 공간의 크기에 맞는 치간칫솔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러한 용품의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사용하기 힘들었다면 치과를 방문하여 사용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환자에게 맞는 용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근 우식은 환자의 관심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부주의로 인해 위에서 말한 상황이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치아의 뿌리에서 충치가 생겨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조금 더 노력한다면 건강한 치아로 100세에 이르는 것,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추가로 불필요한 치료 치료비를 줄이는 것, 이 모두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고

전남 화훼산업 발전의 장애요인과 발전 방향



조윤섭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장

이 가장 넓은 국화는 100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농가의 재배 규모는 0.5ha로 영세하고 5년 이하 생산 종사자는 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 화훼농가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화훼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화훼 수요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 행사, 공공 시설, 마을 단위 꽃길 조성 등에 지역 내 생산 인증을 받은 식물체와 종자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내의 굵직한 화훼류 수요처 중에는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과 국가정원화를 추진 중인 나주 영산강권 일원, 곡성·구례 선진강권의 꽃길을 포함해 향평나비축제를 비롯한 기타 시군의 봄·가을 축제 등이 있다.

둘째, 지자체별로 화훼류 품목별 연간 생산 및 생산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남도내에는 화목류 820농가, 관상수 212농가, 절화류 153농가, 분화류 38농가, 초화·구근류 16농가 등이 화훼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22개 시·군으로 평균하면 겨우 56호 수준이다.

각 지자체와 전남도가 이들 농가를 품목별로 네트워크화하고 연간 생산능력 등을 고려한 뒤, 매년 지자체 소요량을 따져 농가와 납품계약을 하고 상황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생산 판매 계획이 가능해지고 주력 생산품목에 대

한 품질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고품질 생산과 소득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열악한 화훼농가의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형 생산 유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도내 화훼농가의 생산 규모는 영세하고 화목류를 생산하는 노지를 제외하면 10년 이상 된 노후 비가림 하우스가 주요 시설이다.

시설관리와 운영은 대부분 농민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육묘 관리와 수확 포장 등에 소요되는 외부 인건비는 급속히 상승했다.

양질의 표준화된 규격묘를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육묘와 생산환경 관리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올해만 해도 연초에는 긴 강우, 여름에는 유례없는 폭염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지와 시설을 막론하고 자동화된 관수, 환기, 차광, 병해충 방제 등 작업을 스마트화해 생산비를 경감하고 이상기상 환경에 대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초기 시설 지원이 절실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화훼 품종의 국산화 연구 및 보급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개발된 다양한 품종을 활용해 외국 품종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역 대학 및 농업기술원과 협력해 품종 개발과 품질관리 기술교육 등을 강화해 전남도의 화훼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아름다운 꽃향기가 가득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길 기대해 본다.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note: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